

OECD DAC 동향

한국수출입은행 경험기획실 정책연구팀

[주요 내용]

1. Development Issue

- (1) 2013년 DAC의 헬싱키 유형 구속성원조 (Helsinki-type Tied Aid) 동향 분석
- (2) OECD DAC, 일본에 대한 DAC 동료평가 실시(6.17)
- (3) OECD, African Economic Outlook 2014 발간

2. DAC 회원국 동향

- (1) Nordic Development Fund, AfDB와 기후변화대응 업무협약 체결(5.23)
- (2) 프랑스 AFD, 세계은행과 협조융자 간소화 (Streamline Co-financing) 협약 체결(5.29)
- (3) 일본 JICA, NEPAD Agency와 업무협약 체결(6.11)



1. Development Issue

(1) 2013년 DAC의 헬싱키 유형 구속성원조(HTA: Helsinki-type Tied Aid) 동향 분석

□ 헬싱키 유형 구속성원조(Helsinki-type tied aid)란?

- OECD는 1992년 수출신용협약 중 구속성 원조에 대해 Helsinki tied aid disciplines*을 제정하여, 모든 회원국들에게 자국의 구속성 원조에 대해 OECD 사무국 앞으로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함

* ① WB 기준 상위중소득국 (GNI U\$ 4,086 이상) 및 상업성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구속성 원조 공여 금지 ② 구속성 원조에 대한 통보 의무 강화 ③ 구속성 원조의 상업성 여부 판정을 위한 참가국간 대면협의 등을 골자로 함

- HTA는 원조규모 2백만 SDR 이상, 양허성 수준 80%미만의 구속성 원조로 승인 30영업일 전에 OECD 사무국 앞으로 사전 통보 대상임(2백만 SDR 미만 소규모 사업 및 양허성 수준 80% 이상은 사후 통보 대상임)

□ 배 경

- OECD는 매년 발행되는 HTA 사전통보 내역 분석을 통해 DAC 회원국들의 “헬싱키 구속성 원조 지원 원칙” 준수여부 파악 및 감시
- 2013년에는 구속성 원조와 관련한 총 235건(38억 SDR) 중 87건 (23억 SDR)이 HTA이었음

□ DAC 회원국의 지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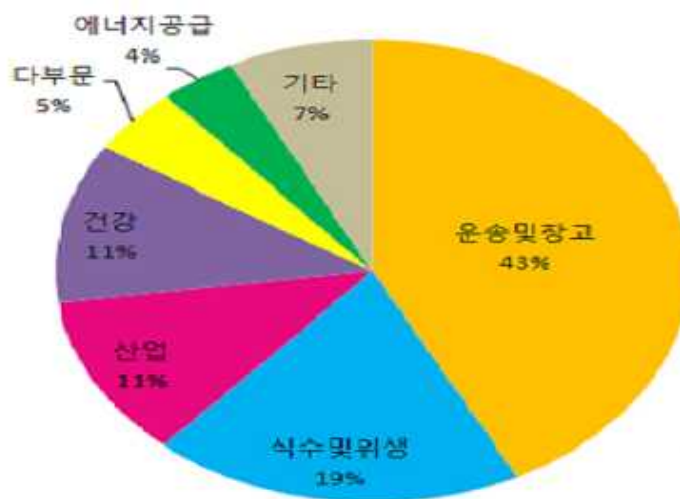
- (규모) 2013년 중 HTA를 가장 많이 통보한 5개 국가는 프랑스 (550백만 SDR), 일본(520백만 SDR), 한국(394백만 SDR), 스페인 (376백만 SDR), 오스트리아(239백만 SDR) 順

- (분야) 2013년 HTA 통보 내역 중 분야별로 운송 및 창고 (972백만 SDR, 42.5%)가 가장 많았고, 식수 및 위생(436백만 SDR, 19%), 일반 산업*(260백만 SDR, 11.4%) 順

* 수공업, 농수산물 가공업, 임산물 가공, 섬유, 피혁, 비교, 의약품생산, 철강 및 비철금속, 기계공업, 수송기계 등

- 인프라 사업이 전체 HTA의 약 73% 차지
- 한편, 과거 상업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면협의(Consultation)가 종종 진행된 바 있는 대표적인 분야인 통신, 에너지, 일반 산업, 광업 분야의 경우 2013년 지원 비중이 16.6%에 불과

분야별 HTA 지원 현황('13년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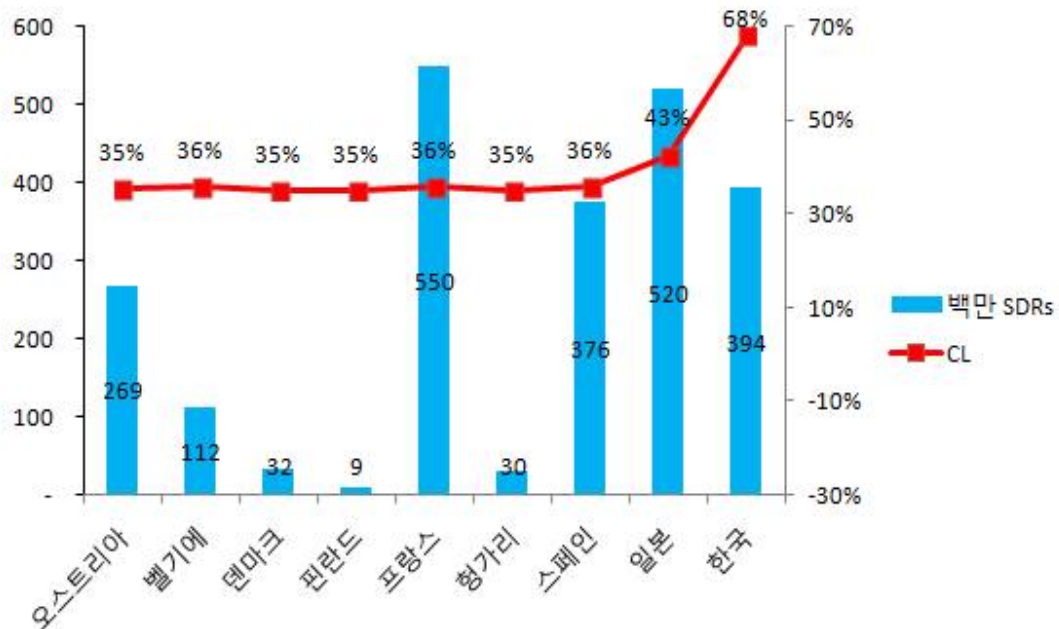
- (수원국) 2013년 가장 많은 HTA를 받은 5개 수원국은 튀니지 (393백만 SDR), 베트남(356백만 SDR), 에콰도르(330백만 SDR), 이라크(260백만 SDR), 필리핀(126백만 SDR) 順

- 수원국별 공여국 리스트를 보면, 튀니지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順으로 베트남에 대해서는 한국, 벨기에, 오스트리아 順으로 각각 지원

* 1995~2013 기간 동안 누적기준으로 보면 베트남, 중국, 인니, 필리핀 順으로 가장 많이 지원됨

- (양허성 수준: **Concessionality Level**) 한편, DAC 회원국 중 한국의 양허성 수준 평균이 68%로 가장 높았으며, 일본 43%, 스페인 36% 등으로 한국은 대부분 회원국의 평균 양허성 수준을 상회

주요국 HTA 현황 및 양허성 수준('13년 기준)



□ 시사점

- 2013년 중, 중소득국에 대한 구속성 원조는 감소한 반면 최빈국 앞 구속성 원조*는 증가
 - * 최빈국 앞 구속성 원조는 양허성수준이 50% 이상이어야 함
- 최빈국 앞 구속성 원조는 전년대비 70.6% 증가한 1,028백만 SDR이었고, 미국이 전체의 47%, 한국이 44%로 대부분을 차지
- '92년 사전통보 의무화 이후 상업성 판단을 위한 대면협의 개최 건수가 대폭 줄어들어,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헬싱키 구속성 원조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
 - ('92) 27건 → ('95) 25건 → ('01) 4건 → ('08) 2건 → ('09~'13) 0건

(2) OECD DAC, 일본에 대한 DAC 동료평가 실시(6.17)

□ 주요 내용

- 일본은 지속가능한 성장 및 인간안보 지원 등을 목적으로 개도국의 자조(self-help) 노력 지원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정책 시행
 - 2003년 ODA헌장에 의거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개발협력을 시행 중이며 금년 말까지 동 ODA 헌장 개정 예정
- 일본의 개발협력정책은 외교 및 국가안보정책과의 일관성을 추구하며, **3D(Development, Diplomacy and Defence)**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둠
- 일본 원조기관인 JICA는 2008년 조직 개편 후 차관, 기술협력, 증여 등 세 가지 형태의 원조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,
- 수원국 내에 대사관 직원과 JICA 현지 사무소로 구성된 ODA T/F를 운영하여 국가원조정책(Country Assistance Policy)의 효과성 증대에 기여
- DAC 회원국들은 2013년 ODA 증가* 및 재난위기경감분야에서의 일본의 적극적인 기여를 평가하고, 금년 중 ODA 헌장 개정, 빈곤 퇴치 강화 및 비구속성 원조 확대 등에 관심 표명

* 일본은 2012년 106억불(GNI 대비 0.17%), 2013년 118억불(GNI 대비 0.23%)을 지원, 28개 DAC 회원국 중 4위 기록

□ DAC의 주요 권고 사항

- 국내 및 외교정책 선택이 개발목표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우선적 ODA 정책 의제 설정
- 원조 배분에 관한 원칙 마련과 유엔의 0.7% 목표 달성 노력 강화
- 최빈국에 대한 ODA 지원 및 비구속성 원조 확대

□ 시사점

- 일본은 금번 동료평가에서 ODA 확대, ODA 현장 개정* 및 Post-2015 개발목표 반영 등의 역할과 의지 표명
 - * 아베 총리는 ODA 현장에 명시된 “ODA를 외국 군대에 지원할 수 없다”는 원칙을 재해 분야에서 군용차량, 수송선박, 항공기 등을 외국군에 제공할 수 있도록 '14년 말 개정하기로 함
- 일본의 ODA는 2013년 이래 외교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써 대폭 증가하였으며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, 민관협력(PPP) 및 재난위기경감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원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추정
- DAC 회원국들은 빈곤퇴치 중심의 명확한 원조 배분 기준 마련과 DAC 규범에 따른 비구속성 원조 확대 등을 강조한 바, 외교정책 목표와 개발 목표간 균형 유지 및 부산공약사항 이행 등 개발효과성 제고가 일본 개발협력의 향후 과제인 것으로 평가됨

(3) OECD, African Economic Outlook 2014 발간

□ 주요 내용

- 아프리카는 2013년 중 경제성장률 4% 유지. 이는 전 세계 경제성장률 3%를 웃도는 수치이나 지역별로 편차*를 보임
 - * 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는 각각 6% 이상, 사하라 이남지역(남아프리카 제외)는 5%, 남아프리카는 1.1%의 경제성장률 기록
-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식량 가격 하락의 결과로 2013년 중 인플레이션율은 전반적으로 안정화에 접어들었음
- 민간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, 선거 제도 도입 및 확대 등은 아프리카 경제적,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-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서 개도국이 글로벌 가치사슬(global value chain)에의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아프리카 역시 무역규모 확대, 지역 및 신흥시장 공략, 인프라 구축, 교육 투자 등의 노력이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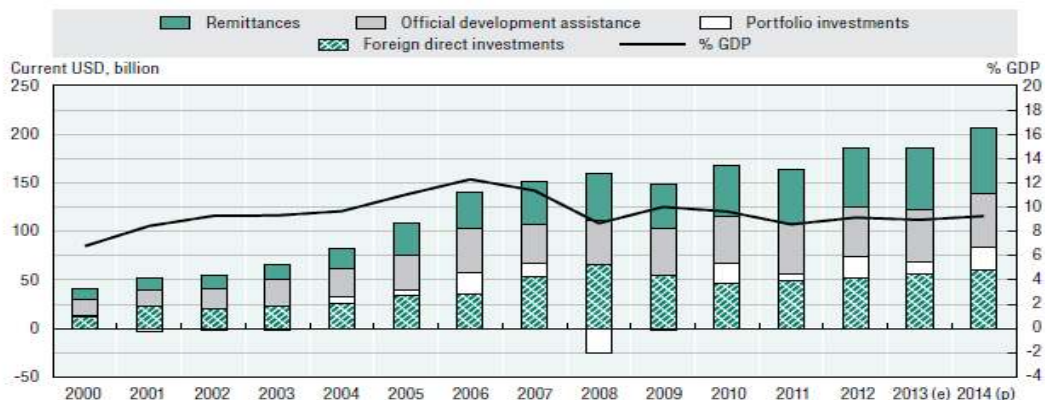
○ 한편, 아프리카의 외부재원의 유입 추이는 다음과 같음

- 아프리카로 유입되는 외부재원규모는 2000년부터 급속도로 증가, 2014년에는 전년 대비 약 7% 증가하여 총 2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
- 외국인 투자(직접투자, 포트폴리오)는 2009년 경제위기 이후 회복세로 접어들어 2014년에는 총 8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는 아프리카로 유입되는 외부재원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
- 외국인직접투자(FDI)의 경우 기존의 자원개발 뿐만 아니라 녹색기술, 제조 및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도 증가 추세에 있음
- 송금 역시 2009년 이후 증가세로 접어들어 2014년 중 약 670억 달러 기록 예상
- ODA는 절대량의 지속적인 증가세에 비해 총 외부재원 중 차지하는 비중*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내 저소득국으로 유입되는 외부개발재원 중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

* ('00) 38% → ('14) 27%

- 조세수입 역시 증가 추세에 있어 중요한 개발재원이 될 수 있으나 조세체계의 취약성 극복이 과제로 대두되는 만큼 해외원조의 대체재라기보다는 정부 수입의 구성요소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

아프리카 외부재원 현황(2000-2014)



출처: African Economic Outlook 2014(OECD)

2. DAC 회원국 동향

(1) Nordic Development Fund, AfDB와 기후변화대응 업무협약 체결(5.23)

- 스칸디나비아 5개국*의 공동금융기관인 Nordic Development Fund는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과 5백만 유로의 기후변화대응 업무협약 체결

* 덴마크, 스웨덴, 핀란드, 노르웨이, 아이슬란드

- 향후 협조융자 형태로 아프리카의 기후변화대응사업 지원 예정

(2) 프랑스 AFD, 세계은행과 협조융자 간소화(Streamline Co-financing) 협약 체결(5.29)

- 프랑스 AFD는 세계은행(World Bank Group)과 아프리카 지역의 협조융자사업을 중심으로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약 체결

- 본 협약은 “원조 효과성을 위한 파리 선언 5대원칙”*에 따라, 사업 수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계은행의 목표 중 하나인 “파트너십을 통한 개발효과 증대”에 기여할 목적으로 체결

* 수원국의 주인의식(Ownership),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 원조의 일치(Alignment), 공여국 간 원조조화(Harmonization), 성과중심관리(Managing for Results), 상호책임성(Mutual Accountability)

- 또한 AFD는 협조융자 사업의 감독 권한을 세계은행에 위임,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더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(3) 일본 JICA, NEPAD* Agency와 업무협약 체결(6.11)

* New Partnership for Africa's Development Planning의 약자. 2001년 아프리카연합에서 채택한 자발적 아프리카 개발 이니셔티브로서, 2010년 NEPAD 수행 담당 Agency 설립

- JICA는 6월 11일, 아프리카의 인프라 및 농업개발프로젝트 협력을 목적으로 NEPAD Agency와 업무협약 체결

- 본 협약을 통해 지난 5차 아프리카개발회의(TICAD V)*에서 발표한 아프리카 지원계획이 아프리카의 자발적 개발전략과 부합하도록 NEPAD Agency와 협력할 계획이며,

*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의 약자로, 1993년 처음 개최된 이래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간의 글로벌 프레임워크로 자리매김함

- 기존에 JICA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기술협력 외에 인프라 및 농업 분야에서 포괄적인 제휴를 추진할 예정